

I. 最近 經濟 動向과 展望

1. 景氣 概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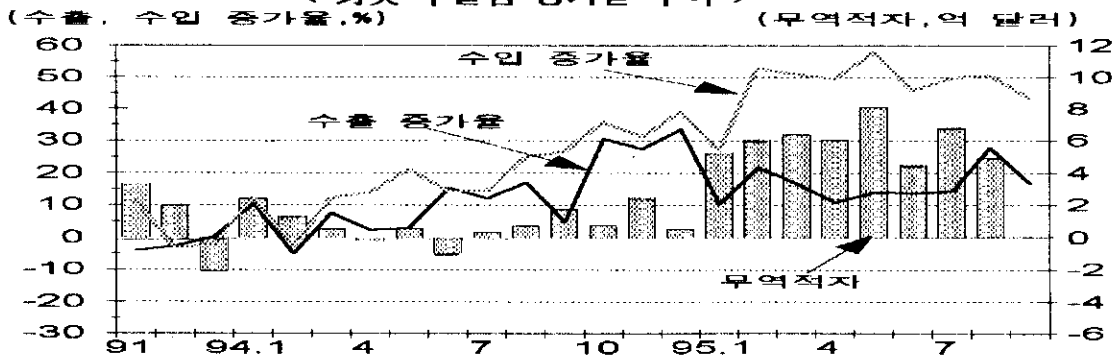
- (動向) 貿易收支 赤字가 대폭 擴大되었으며 특히, 對美 貿易收支 赤字가 急增하고 있음 (9월말 현재 52.1억 달러 赤字)
- (原因) 엔高에 따른 수입선 전환으로 미국으로부터의 資本財 輸入이 큰 폭으로 增加하고 市場開放 擴大로 인해 農産物과 消費財의 輸入도 增加하고 있기 때문
- (展望) 市場 開放의 加速化와 圓貨 切上에 의해 對美 貿易收支 赤字는 더욱 增加할 것으로 보임 (금년 중 70억 달러 赤字 展望)

對美 貿易收支 赤字의 急增

對美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急增

- (動向) 올들어 交易 規模가 擴大되는 가운데 貿易收支 赤字도 增加하고 있음
 - 지난 10월 16일 수출입 총액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달말 경에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역규모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 반면 貿易收支 赤字도 9월까지 93.2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3억 달러 이상이 증가하였음
 - 특히 對美 貿易收支 赤字가 9월까지 史上 最大 規模인 52.1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의 적자인 4.7억 달러의 10배 이상으로 증가함
 - 이는 이 기간 중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5.9%에 해당하는 것임
 - 동기간 중 對美 輸出은 17.7% 증가에 그친 반면 輸入은 46.8% 증가하였음

< 對美 수출입 증가율 추이 >



엔高에 의한 수입선 전환과 市場開放 擴大가 對美 무역 적자 증가의 主要因

○ (原因) 資本財와 農産物의 輸入 增加가 對美 貿易收支 赤字의 主要인인

- 지난 상반기에 내내 持續된 엔高에 의해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 부담이 커진 국내 기업들이 資本財 수입선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돌리고 있음
- 그동안 주요한 對日 輸入 品目이었던 일반기계, 유선통신, 금속제품 등의 對美 輸入이 큰 폭으로 증가함

<주요 품목의 對美·대일 수입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품목		유선통신	금속제품	철강	기계요소 및 금형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일본	94 연간	178.3	26.6	48.3	16.7	32.6	36.8
	95.1~8	22.8	19.3	25.2	25.1	-0.5	34.5
미국	94 연간	120.8	20.1	-0.2	9.6	27.7	20.6
	95.1~8	148.6	92.5	30.5	39.4	42.8	61.7

- 美國의 通商壓力에 의해 통관 절차가 간소해진 農産物의 輸入도 急増함(곡물 214%, 쇠고기 96.1%)
- 중국의 곡물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선의 미국 전환도 주요 요인임
- 한편 消費財의 對美 輸入도 急増하고 있음
- 자동차(106.1%), 의류(98.7%), 가구(132.1%), 가정용 전자(580.1%), 완구(58.0%), 귀금속(312.1%) 등

市場 開放의 持續과 元貨 切上으로 적자 폭은 더욱 증가할 展望

○ (展望) 對美 輸入 增加勢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展望이어서 對美 貿易收支 赤字는 연간 7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됨

- 내년 大選을 앞둔 클린턴 행정부의 對韓 通商壓力 강화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와 元貨 換率의 切上勢 등이 對美 수입 증가세를 부추길 것임
- 이러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금년 중 미국의 4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임 (지난해 6위)
- 對美 貿易收支 赤字의 增加가 對日 貿易 逆調와 같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는 對美 輸出 增大 方案 摸索과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이 보 성)

2. 國內 經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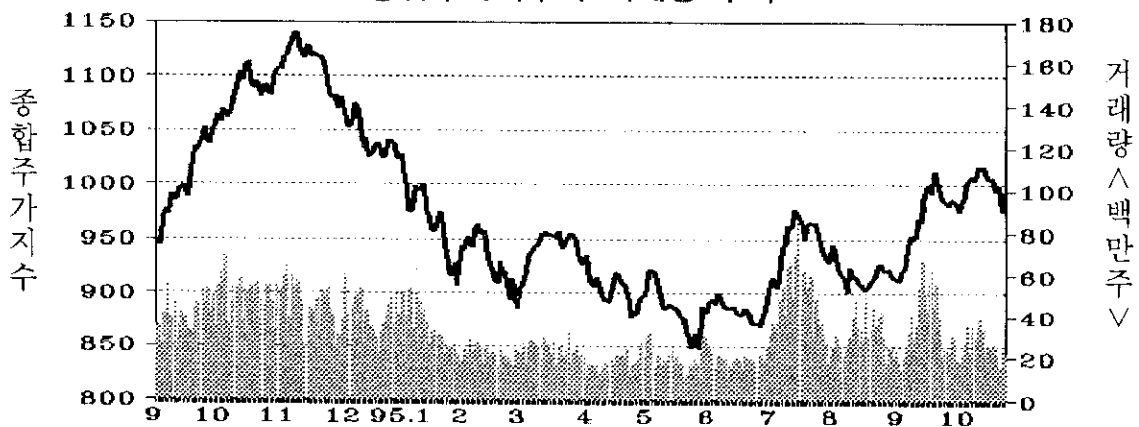
- (動向) 10월의 주식 시장은 장세를 이끌만한 특별한 材料의 不在로 인해 騰落을 거듭했지만, 단계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展望) 11월의 주식 시장은 景氣 軟着陸 가능성, 금리의 하향 안정세 지속, 그리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회피 자금의 증시 유입 가시화 등의 好材에 힘입어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 1,020 포인트를 돌파할 전망이다

需要 增加에 따른 株價의 上昇 局面

주도주의 부재로 인해 오르내리락 장세가 지속되나 점진적인 상승 국면

- (動向) 10월의 주식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장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主導株의 不在로 인해 오르내리락 장세가 지속되나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냄
 - 증시에 好材로 작용했던 요인으로서는
 - 금리 수준이 12%대로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
 - 10월중 신용 만기 물량 1조 2천억 원의 순조로운 소화
 - 종합 주가 지수 1,016.77 포인트의 연중 최고치 돌파에 따른 투자 심리의 호전
 - 반면에 증시에 惡材로 작용했던 것은
 - 고객 예탁금 유입세의 저조. 고객 예탁금의 경우 10월 20일 현재 2조 7,220억 원으로 월초보다 증가했지만, 금융 소득 종합 과세로 인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음
 - 그리고 국정 감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설 등이 악재로 작용했음

< 종합주가지수와 거래량 추이 >



수요의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임

○ (需給 構造) 10월중 信用 滿期 物量의 순조로운 소화와
종합 과세 회피형 자금의 유입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需要의 증가가 예상된다

- 현재까지의 고객 예탁금 수준은 금융 소득 종합 과세로 인한 자금 유입의 기대감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고객 예탁금 변동이 종합 주가 지수에 後行한다는 점과 종합 주가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볼 때, 11월부터 금융 소득 종합 과세회피 자금의 증시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고객 예탁금의 증가세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11월의 주식 시
장은 1,020 포인
트 대를 넘어 대
세 상승 기초를
이어갈 전망이다

○ (展望) 11월의 주식 시장은 景氣 軟着陸 가능성, 금리의
하향 안정세 지속, 그리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회피 자
금의 증시 유입 가시화 등의 好材에 힘입어 매물이 집
중되어 있는 1,020 포인트를 돌파할 전망이다

-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12일까지 종합 주가 지
수 1,000 포인트 이상에서 매매된 25억 8천만 株 中에
서 1,020 포인트 이상의 거래 비중이 83.8%에 달했음.
이중에서도 1,020 ~ 1,040 포인트 대의 거래 비율이
20.4%로 어떤 다른 지수대보다도 높았고 1,100 ~
1,120 포인트까지도 18.7%에 달했음
- 11월의 주식 시장은 需要 要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표
와 증시 주변 자금 여건으로 볼 때, 연중 최고치를 기
록한 종합 주가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
으로 보임에 따라 가장 두터운 매물벽인 1,020 ~ 1,040
포인트 대를 돌파하여 上昇 基調가 이어질 전망이다

(천 일 영)

<株式 市場의 主要 指標>

구 분	9월20일	9월30일	10월10일	10월24일
종합 주가 지수	1009.47	982.65	1004.16	992.76
고객 예탁금(억 원)	29,553	26,219	26,377	25,652
회사채 수익률(%)	12.70	12.55	12.13	12.10
거래량(만 주)	4,462	1,836	3,010	2,265
對美 달러 엔貨 환율	102.79	99.70	100.45	9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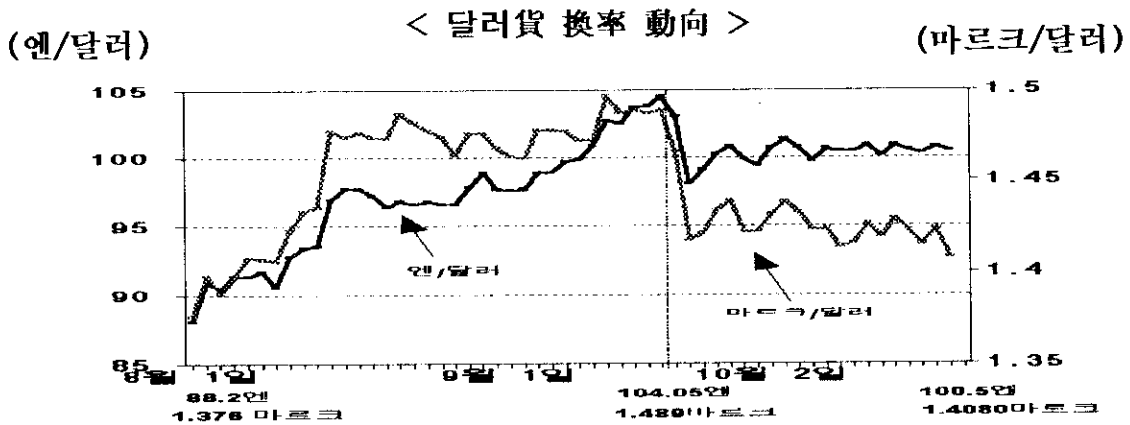
3. 海外 經濟

- (動向) 10월 이후 엔貨 換率의 安定勢, 마르크貨의 強勢가 나타남
- (原因) 엔貨 換率의 安定勢는 주요국의 달러 가치 방어 의지의 확산으로, 마르크貨의 強勢는 유럽 통화 통합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인
- (展望) 엔/달러 換率은 소폭 하락후 연말까지 100엔 대를 중심으로 騰落 예상, 마르크/달러 換率은 연말까지 1.45마르크 대로 회복 展望

엔貨 換率의 安定勢와 마르크貨의 強勢

엔貨 換率의
安定勢와 마르
크貨의 強勢

- (動向) 10월초 이후 엔貨 換率이 안정세를 나타내
는 반면 마르크貨 가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 10월 이후 엔/달러 換率은 100엔 대에서 등락
 - 마르크/달러 換率은 9월 19일 1.48마르크 대에서 10월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최근에는 1.40마르크 대 이하로 下落하였음
- (原因) 엔貨 換率의 安定勢는 G7회담에서의 달러貨 강세 지지, 일본 中央銀行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介入 등에 기인하였으며, 마르크貨의 強勢는 유럽 통화 통합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유럽 지역의 政情 不安이 주요인이었음
 - 미국 貿易赤字와 일본 貿易黑字의 감소세로 엔貨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豫想되었음



G7 재무 장관 회의 등에서 달러 強勢와 國際 金融市場 安定을 지지하면서 엔화 換率은 安定勢

마르크화는 유럽통화통합(EMU) 발족의 불투명 등으로 強勢를 나타냄

엔/달러 換率은 소폭 하락 후 연말까지 100엔 대에서 騰落

마르크화는 연말까지 1.45마르크 대로 回復 展望

- 8월중 미국 貿易赤字는 전월보다 21.2% 감소한 88.2억 달러로 금년중 월별 최저치 기록
- 일본의 9월 貿易黑字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112.8억 달러로 3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95 회계 연도 상반기(4~9월)의 貿易黑字도 전년 동기대비 5.1% 감소
- 그러나 지난 9일 G7 재무장관 회의와 연이은 세계은행(World Bank) 및 IMF 연차 총회에서도 달러 強勢를 지지하였고 환투기 등으로 인한 金融 不安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지가 외환 시장에 확산되면서 엔화 換率이 安定勢를 나타냄
- 유럽에서는 1999년 유럽통화통합(EMU: European Monetary Union)을 위한 전제 조건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내두되면서 安全通貨로서의 마르크貨 수요가 증가
 - 프랑스는 총리의 사임 가능성 및 재무장관의 불명 선거 자금 파문 등으로 프랑화가 지난 3월 이후의 최저치인 마르크당 3.52프랑까지 폭락

○ (展望) 엔화 가치는 短期的으로 소폭 하락후 安定勢 유지, 마르크貨는 1.45마르크대로 回復 展望

- 短期的으로 엔/달러 換率은 現水準을 유지하거나 소폭 下落勢를 나타낼 것으로 展望됨
 - 미국 증시가 한달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好況을 나타내고 있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마르크貨 강세 현상에 연동되어 98~100엔대로 소폭 下落할 可能性이 있음
- 長期的으로도 일본의 景氣 回復에 대한 不安感(달러화 강세 요인)과 미국 金利 引下 可能性(달러화 약세 요인) 등으로 연말까지 100엔 대를 中心으로 騰落 豫想
- 마르크貨는 短期的으로 強勢를 나타낼 것이나 최근 독일 경제의 鈍化, 독일 金利 引下 可能性, 각국의 달러화 強勢 支持 등으로 연말까지 1.45마르크대로 回復될 展望 (이준호)